

재점검의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나는 보기 좋게 포장하여 예배하려 하나  
주는 있는 그대로 다 꺼내 놓으라 하신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June 27,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아모스 1:3-2:3 <b>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찬송 434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7-14

하나님의 비밀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로 상반기를 결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후반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도록 힘 합시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선교주일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사역정상화 오늘부터 **2층 예배실**과 **친교실**에서 **예배와 친교, 성경공부**와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주일예배 예배를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과 CUMC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 CUMC 사역재계 7월 4일부터 **주일예배**를 **1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 다음 주일은 **설립감사주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 지난 주일 CUMC 친교실의 **정리**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름방학**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쓰시다.
-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치유, 회복,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6월의 사역 - 선교 주일(30)      선교 주간(27-7/3)

♥ 6월 생일축하 ♥ 홍은솔(7)   김영은(8)   오승국(15)   이정연(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20	6/27	7/4	7/11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6/20	6/27	7/4	7/11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7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과 충성** / 아모스 1:1-2, 7:10-15

헤브론 인근 드고아의 고산지에서 목축을 하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아모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만 했다. 왕이나 권력자의 후원 없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 벨엘 왕실 성전의 책임자인 아마샤 선지자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협박했다. 그런 미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의 충성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만큼 성장한다.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하는성도의 첫 걸음이다.

###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 아모스 1: 3-2:3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

---

---

때로는 십자가의 길

---

---

---

만사형통 가운데 연단과 징계를

형통하던 나라들

---

---

---

절망 가운데 소망과 회복을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약소국들

---

---

---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 아모스 1:3-2:3**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주장하기 보다는 양보하며, 이득을 얻기 보다는 손해를 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위한 고난도 감내한다. 그럼에도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아모스 역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고난과 모욕을 당하며, 재앙의 선지자라고 조롱 받으며 힘든 삶을 살았다. 하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상의 심판을 경고한다. 아모스 1:3-2:3은 이스라엘 주변의 6 나라, 즉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한다. 첫째,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은 르우벤의 기업 길르앗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아람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하사엘은 잔인무도했다. 둘째, 블레셋은 남왕국을 침략해 여호람의 왕자들과 아내들, 백성들을 전쟁노예로 팔았다. 셋째, 베니게의 수도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을 잇고, 이익만을 챙겼다. 넷째,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형제국 이스라엘을 미워 했고, 돕지 않았다. 다섯째, 암몬은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침략했다. 심지어 산모와 태아를 잔인하게 죽였다. 여섯째, 모압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유혹했을 뿐 아니라, 유다를 돕던 에돔에게 잔혹하게 복수했다. 무덤을 파헤쳐 왕들의 뼈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세상과 사람들의 ‘거듭 반복 되는 죄’란 표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반복해 주시며,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징계와 훈육을 받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만행을 저질렀던 이웃 나라들의 죄는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한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반복되면, 의도적인 죄이다. 엄중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때로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 고난 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하나님, 저를 깨뜨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시련을 사용하실 수 있다.

몇 년 전, 브루스 윌킨슨이 《야베스의 기도》(The Prayer of Jabez)라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두 구절에 초점을 두었다. 당신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성경에 딱 세 번 언급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가 귀중한 자(대상 4:9)였다고 듣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 사실 “그가 고통을 초래한다”라는 뜻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이다(9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의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그를 낳는 과정이 유난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믿는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이 특별한 기도를 드린 이유일 것이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10절).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한다.

나는 윌킨슨의 책을 읽을 때 이 기도의 단순함에 감명을 받았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드리기 원하는 기도의 유형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피하게 하소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내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기도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는 동안, 나는 그것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기도는 성경적이고 유용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하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소 근시안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누가 고난을 원하는가? 누가 싸우길 원하는가? 하지만 나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성장하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더 강해지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시련은 즐겁지도 않고 견디기 쉽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목적을 위해 시련을 사용하실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담대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오직 시련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자신에게서 미래의 성숙함을 빼앗는 것이다. “주여, 저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는 옳은 것처럼 느껴지며, 종종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갈망이고 가장 큰 우선순위라면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를 놓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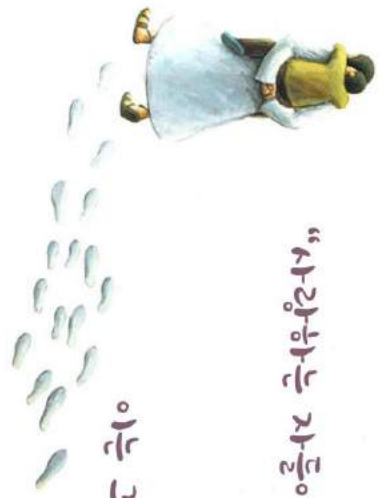
“하나님, 제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며, 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성숙해지도록 돕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은 삶의 도전들이다.

안전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감을 갈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하나님께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당신을 깨뜨려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 크레이그 그로셴 『위험한 기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이 응답은 너희가 내게 언제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증거 yourselves 하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증거 yourselves 하라. 너희가 내게 증거 yourselves 하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